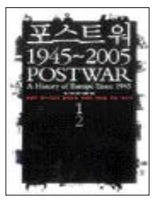
북스

Books

유럽 60년사 총정리

포스트 워 1·2



두 차례 세계대전은 세계문명의 중심지였던 유럽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 폐허 속에서 유럽은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

'포스트 워 1·2'는 미국 뉴욕대 교수인 토드 주트가 제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의 기원, 유럽제국주의의 종언과 식민지 해방,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탄생과 발전,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 발칸전쟁, 이주 노동자 문제, 영화·음악 등 유럽인들의 일상적인 삶까지 철저하게 분석한 뒤 유럽의 60년사를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현대 유럽의 역사는 '계급'에 집착하며 '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좌파와 '복지'를 포기하고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우파때문에 미래가 없다"며 "좌파는 '계급'을 뛰어넘고 우파는 '시장' 너머에 있는 사회적 자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플래닛·각 권 3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

근대적 청년 … 예술에서 구원을 얻다

부랑청년 전성시대

소영현 지음

상상해보라. 1920년 일제 강점기 경성. 그들은 화려한 양복을 입고, 금테안경을 쓰고 시계를 찬다. 당시 경성에서도 매우 드물었던 자동차를 타고 데이트를 다니며 서양식 음식에 익숙하다. 대개 학생 신분이기는 하지만 학교생활이나 공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저 술이나 마시면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든다.

이 시점에서 궐련 한 대쯤 피워줘야 한다. 너무 폼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이 근대적 인간으로 투영된 청년의 모습이었다.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의 소영현 연구교수가 문화 연구서 '부랑청년 전성시대'를 냈다. 일제 강점기 역동의 시공간에서 그 시대의 중심에 섰던 주인공 '청년'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행동했으며, 어떤 사고를 했는가를 '근대 청년의 문화 풍경'이란 이름으로 그려보았다.

열 네 개의 작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이 책은 1900년대 전후에서 1920년대에 걸친 근대의 대표적 인간형으로 선택된 '청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춘 군상을 추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청년에 대한 묘사는 언제나 추상적이었다고 한다. 강건하고 근면하거나 열정에 찬 존재가 청년의 일반형이지만 이는 하나의 이상적 이미지에 가까웠다. 반면 현실속의 청년에 대한 묘사는 언제나 생생했다. 그것은 강건하고 결의에 찬 열정적 모습의 애국청년이 아니라 부랑청년(불량청년)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근대의 새로운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부랑청년은 1910~1930년 패션과 함께 시작해 겉멋을 통해 완성됐다. 세비루 양복을 입으며, 칼포담배를 피우고 서양 음식을 즐기는 '겉개화꾼'이었다. 여성이라면 신식 학문을 배운 미인으로, 긴 드레스나 양장 투피스를 차려입고 구두와 챙이 넓은 모자, 양산으로 한껏 멋을 낸 신여성이었다.

그렇다고 이들 부랑청년이 단순히 '속물'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속물은 속물이되 식민지 속 절망감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몸에 걸친 속물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3·1운동 전후 복잡한 현실, 다시 말해 전근대 탈피라는 희망과 식민지 현실이라는 암담함이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속물로 몰고갔다는 것. 이 때문에 청년들은 반항아적인 기질을 발휘하면서도 현실을 거부하거나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명월관'으로 대표되었던 기생집과 요릿집이 청년 타락의 단골장소였고, 사랑 타령을 늘어놓고 주정하고 댄스홀에서 방황하는 무뢰배가 식민지 치하 청년의 현실이었다. 나름대로 이유있는 방황을 했던 한국판 제임스 딘이었던 셈이다.

일부 부랑청년은 예술에 심취해 구원받기도 한다. 소설에 시에 음악에 미쳐 현실과 의식의 간극에서 오는 고통을 넘고자 했다. '감자'의 작가 김동인이 대표적 인물로 '예술청년=부랑청년'이라는 새로운 도식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저자는 이처럼 부랑청년을 탐구하면서 식민지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이밖에 입신출세 시대의 유학생, 고학생 신화, 만국 공동어 에스페란토와 사회주의, 청년정신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지역감정과 청년정신, 청년의 반대편에 있었던 신여성들을 만나보면서 20세기 초를 수놓은 다양한 청춘들의 모습을 조명한다.

'아, 그 시절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독자들은 조금씩 차이나는 작은 이야기들을 잇대다 보면 어떤 무정형의 희미한 것을 어렴풋이 상상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과거 '청년' 시대의 희미한 상을. 또 그 겹쳐진 이야기 틈새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금-여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푸른역사에 동시 출간한 '문학청년의 탄생'과 김진송이 쓴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현실문화 연구 간)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푸른역사· 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910~1930년대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부랑청년은 세비루 양복을 입고 서양음식을 즐기는 '겉개화꾼'이었다. 1930년 후반을 배경으로 청년들의 삶을 그린 영화 '모던보이' 한 장면.

풍선을 샀어

조경란 지음

소설가 조경란씨가 4년 만에 불안과 열정으로 가득 찬 커다란 '풍선' 하나를 꺼내놓았다. 등단 13년째로 접어든 조씨는 지난 2004년 '국자이야기'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소설집 '풍선을 샀어'를 냈다. 날카로운 면도칼로 천천히 연필을 깎는 듯한 섬세한 문체와 등장인물의 미묘한 심리 변화는 전작들에 비해 훨씬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다.

죽음, 절망, 불안, 고통, 슬픔 등 소설 속 등장인물들 사이에 흐르는 서늘한 기운은 상처를 치유하는 성숙한 사유를 통해 단정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여덟 편의 단편소설의 화자들은 하나같이 1인칭 주인공인 '나'로 표현됐다. 저마다 다른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나'(상처)에게 솔직해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고백 형식으로 보여준다.

표제작인 '풍선을 샀어'의 나는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질문의 해답을 니체에게서 찾는 철학도. 나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J를 만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

다른 수록작들이 보여주는 관계에 대한 작가의 시선도 따사롭다. '달팽이에게'에는 결혼에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고모의 죽음을 통해 가족간의 화해를 이야기한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엄마와 그녀를 간병하는 서른 중반 딸의 이야기를 그린 '밤이 깊었네'의 희곡작가 나는 글 쓰기의 고단함을 털어놓는다. 글을 쓰는 고통을 극복해간다는 측면에서는 작가 본인의 내면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또 '형란의 첫 번째 책'은 사라져버린 남편을 찾기 위해 낯선 소도시로 가는 나를 그렸고 '여름의 환(幻)'은 여름만 되면 불안해지고 들뜨는 나의 내면 심리를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한편 조씨는 장편소설 '식빵 굽는 시간' '혀', 소설집 '불란서 안경원' 등을 발표했으며 문학동네작가상,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절망에서 푸른 희망의 실을 자아내다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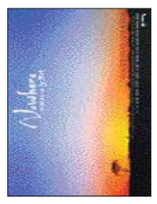
▲꼴-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는다=국민 만화가 허영만의 '타짜' '식객'에 이은 신작만화. 주인공인 만화가 '마수걸이'가 관상만화를 그리기 위해 관상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을 그렸다. 허 화백이 관상학자에게 관상을 직접 배워 화제가 됐었다. 〈위즈덤하우스·9천800원〉

▲가례도감의궤와 미술사-왕실 혼례의 기록=한국학중앙연구원인 저자 이성미가 그간 발표했던 논문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조선시대 궁중의 중요한 행사와 왕실의 혼례 기록인 가례도감의궤를 이야기 했다. 의궤를 다룬 논문을 쓰게 된 과정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함께실렸다. 〈소와당·3만5천원〉

▲일본인의 조선정탐록 조선 잡기=19세기 말 부산에서 행상을 하며 조선을 정탐했던 혼마 규스케(1869~1919)가 낭인단체인 천우협 기관지 '이륙신보'에 1894년 4~6월까지 연재한 내용을 묶었다. 근대 일본인의 시각에서 조선의 풍습과 일상생활을 기록했다. 〈김영사·1만3천원〉

▲달 긷는 집=올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소설가 한승원이 1999년 '노을 아래서 파도를 줍다' 이후 9년 만에 펴낸 네 번째 시집. '쑥 국화' '족두리 꽃' '치자 꽃' 등 여러 꽃의 이미지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 했다. 〈문학과 지성사·7천원〉

▲조선왕비 오백년사=사학과 교수인 저자 윤정란이 조선조 왕비 28명의 삶을 통해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살폈다. 첫 왕후인 신덕왕후 강씨,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남편의 죽음을 방관한 사도세자의 아내 헌경왕후 홍씨 등 28명의 삶을 추적했다. 〈이가출판사·1만3천800원〉



▲어디에도 없는 그곳, 노웨어(Nowhere)=김지희·남종영·손현주 등 평균 10여 년 이상을 여행한 베테랑 여행가 11명의 오지 여행기. 영화 '닥터 지바고'의 타이가 침엽수림(러시아 투바공화국), '어린 왕자'의 바오밥나무 위로 쌍무지개가 뜨는 길이 보이는 마다카스카르 등이 소개됐다. 〈예담·1만3천원〉

▲5리터-피의 역사 혹은 피의 개인사=저널리스트인 빌 헤이스가 피의 역사를 인문학적 언어로 정리했다. 신화 속 메두사의 피, 자신의 해부도에 '사랑 정맥'과 '모유 정맥' 같은 존재하지 않는 혈관을 그려 넣은 다빈치 등 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가 실렸다. 〈사이언스북스·1만8천원〉

▲우주에서, 이소연입니다=2006년 4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선발에서 지구 귀환까지, 1만7천500시간의 대장정을 기록했다. 도전, 선발, 훈련, 발사, 귀환 등 우주인 배출 과정과 감동의 순간을 담은 사진이 함께 실렸다. 〈샘터·1만2천원〉

▲집을 생각한다=주택전문 건축가인 나카무라 요시후미가 주택을 만들면서 느꼈던 생각과 경험담을 담았다. 저자가 직접 설계한 집을 비롯해 찰스 무어, 필립 존슨, 무라노 도고 등 건축가들이 지은 주택에 대한 이야기와 좋은 집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소개했다. 〈다빈치·1만5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 건물임대
호남최대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접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타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타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중개사
임대문의
011-625-0510, 016-611-3424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 공업지역내 공장매매 공장건물3층 910평, 대지 800평 신축준공2007년11월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정부지방청사 입구 이번도로,식당,음악 홀적합 200평 매280만원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월300만 융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기동 부영Ⓐ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중흥Ⓐ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아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법원경매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일곡동	현대	24/16층	7천6백	5천3백
화정동	한양	31/16층	1억1천	7천7백
소촌동	라인연립	24/4층	5천6백	3천9백
풍향동	대주 연립	60/1층	2억	1억1천
산수동	광명	31/15층	9천5백	6천 6백
오차동	금호	32/4층	8천5백	5천9백
백운동	목우	32/12층	8천	5천6백
월계동	기산	29/5층	8천7백	6천
양산동	호반	15/11층	4천3백	3천
봉선동	라인	50/3층	1억7천	9천5백
봉선동	무등	31/15층	9천	6천3백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쌍촌동	72/150	4억1천	2억3천
신안동	222/796	22억	7억8천
송정동	123/298	12억3천	6억9천
월계동	181/543	22억	9억8천
화순 만연리	50/30	1억4천	9천7백
신안동 모텔	58/223	5억6천	2억1백
나주 송월동	64/187	4억5천	1억6천
백운동 모텔	44/200	6억5백	2억7천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북구 산수동	88/38	1억2천	6천6백
백운동	50/54	1억8천	6천5백
광산구 소촌동	65/49	1억2천	6천6백
장성 삼서	152/74	6천	3천3백
북구 중흥동	40/40	8천6백	4천8백
북구 오차동	57/64	1억5천	6천5백
남구 월산동	64/47	1억5백	5천9백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오차동	108/144	3억9천	2억8천
	풍암동	72/138	4억4천	3억9백
	운암동	57/253	5억5천	3억8천
	풍암동	61/146	3억9천	2억7천
	오차동	69/77	2억2천	1억5천
상가주택	봉선동	92/219	7억1천	3억2천
	풍암동	66/148	3억7천	2억5천
	화정동	143/470	13억	7억3천
	중흥동	241/507	16억	5억6천
	중흥동	168/163	5억8천	2억
	풍암동	29/163	4억8천	2억7천
	우산동	95/579	14억	7억7천
근린상가	쌍암동	43	4억8천	8천8백
	월계동	62/4층	2억	7천2백
	화정동	11/3층	1억2천	2천7백
	금호동	20/1층	2억	1억4천
	매월동	17/1층	6천5백	1천3백
	봉선동	35/1층	5억8천	1억8천
	월계동	20/1층	2억3천	6천5백
	삼각동	10/1층	5천	2천8백
오피스텔	치평동	13	5천8백	4천6십
	북구 북동	13	4천	2천8백
	월산동	27	1억2천	6천6백
	북구 북동	12	4천	2천8백
	월산동	19	8천5백	3천8백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담양 농지	422	2천4백	1천6백
광산구 지죽동	480/465	11억	4억
광산구 장덕동	518/407	9억3천	5억2천
각화동 대지	45	7천4백	4천1백
쌍촌동 대지	100	1억5천	1억
장성 삼계	1148	1억9천	1억6백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평으로환산시 ㎡×0.3025)

▶주택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	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화정2층	31/36	7540만	4220만
두암동/2층	49/61	1억2600만	7050만
오차동/2층	45/56	1억6100만	1억1240만
농성동/2층	60/64	2억8900만	1억6200만
봉선동/2층	48/58	1억2150만	8500만
월산동/2층	33/32	8670만	6100만
지산동/2층	50/52	1억3090만	7330만
화정동/근린주택	51/158	3억8300만	2억7500만
풍암동/근린주택	66/165	3억4800만	2억4400만
금호동/근린주택	65/151	4억3220만	3억250만
풍향동/근린,교대앞	44/127	4억900만	2억8650만

▶아파트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	명칭	평/층	감정가	최저가
월계동	대우	37/2층	1억2000만	8400만
운남동	주공도곡	32/8층	9600만	6720만
주월동	덕산	24/21층	6900만	4830만
방림동	모아	35/3층	9000만	6300만
운림동	라인광명	47/12층	1억6000만	1억1200만
산수동	동산로얄	32/1층	6700만	4690만
마륵동	화암가	34/4층	1억7000만	1억1900만
금호동	호반2차	33/1층	1억2500만	8750만
풍암동	대주	59/3층	2억2000만	1억5400만
유촌동	다이아빌	24/10층	1억1000만	7700만
쌍촌동	광명하이츠	31/13층	8500만	5950만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소재지/용도	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송정동/상가사무실	123/298	12억3600만	5억8210만
동림동/대로변,상가	250/99	5억4200만	3억7930만
화정동/사무나	169/768	14억1490만	9억3050만
대인동/대로변,상가	57/48	4억9640만	2억7600만
궁동/충장로2가,상가	372/1653	95억	27억
월계동/컨벤션5층	전용34평	1억7000만	1억1900만
월계동/대상마크1층	전용41평	4억400만	2억2630만

▶근린주택/다세대(빌라)/원룸 상담

소재지/용도	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풍암동/원룸15가구	61/148	3억8300만	2억7500만
화순읍삼리/원룸12가구	92/165	3억8000만	2억6600만
서동/다가구주택5가구	57/97	2억7000만	1억8660만
계림동/원룸15가구	66/120	3억8200만	2억6800만
광천동/모텔5층	53/205	5억600만	2억2700만
누문동/모텔6층	134/400	14억5000만	10억
백운동/모텔5층	44/200	6억600만	2억7140만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나주 문평면	전	1806	4650만	3255만
일곡동	대지	83	2억660만	1억4470만
영광 백수면	답	1035	2740만	1920만
주월동	대지	201	5억7200만	3억2030만
장성 북이면	과수원	2657	1억5700만	1억1000만
봉황 황용리	과수원	3324	2억2000만	1억5400만

▶공장

소재지	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산포면 매상리	1360/433	17억4300만	9억7600만
봉선면 가곡리	1963/326	11억3500만	6억3600만
나주시 노안면	363/216	3억3500만	1억5000만
나주 금천면	1438/455	4억3200만	3억250만
옥동/영동공단	2000/1435	34억4900만	22억800만
옥동/영동공단	1070/423	8억5800만	6억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물
◉예술의거리 5억5천 미술학원적합 건물 대70P 건160P 지상4층 지하1층 급매
◉주월동 5억 병원의원매매 대65P 건150P 지상4층 즉시 입주가능
◉7억9천 빌딩 급매 호남대 부근 광산구 서동동 대270P 건287P 보1억9천 월450만원
◉13억9천 빌딩 20×10m코너 전대 후문 대110P 건320P 보3억3천 월900만
◉12억점포 8칸 빌딩부지 30×8m코너 보증금 1억 월550만원 포함
◉13억고시원 대110P 건300P 월80개 월세1,500만원
◉상업지역 13억 빌딩 대140P, 건510P 보증금 2억 월세850만원
◉17억5천 1층 점포 12칸 병원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2억 마트점 투룸매매 대250P 건800P 1층 대형마트 투룸 51개 주택별도 지하1층 지상7층 보2억3천만원 월1,600만원 포함
◉26억 상업지역 빌딩 대185P 건890P 보증금 5억 월1800만원
◉41억 상업지역 빌딩 대200P 건1,100P 보12억 월세2,000만원
◉47억 빌딩 대600P 건1000P 보10억 월세3000만원 융자20억 포함
◉63억 빌딩 대320P 건1800P 보21억 월세1000만원
◉120억 공장부지 공업지역 12,000P 현재 공장 운영중

주유소 전문중개
◉9억 주유소 급매 대300P 35m도로변
◉13억5천 시내 주유소 급매 대400P 일매출 800만-900만원

병원부지 전문중개
◉13억 병원 의원용 건물 급매 대115P 건420P지하 1층 지상 5층

땅
◉각화동 정비 공장부지 800P 상업지역 35m 도로접 P당 270만원

6억 사찰 급매
곡성 대2000P 건200P 광주에서 30분
◉담양 금성 1,600P P당 10만원 주택포함 남향
◉순창 금과 2,780P P당 5만원 계획관리지역
◉순창 금과 4,700P P당 4만원 계획관리지역
◉창평 4,200P 9억 제1종 주거지역
◉골프연습장 부지3 8,000P 자연녹지 북구 P당 50만원
◉정비공장 창고부지 자연녹지 소태동 250P P당 70만원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P 남향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삼성홈플러스에서 10분거리 P당 5만원
◉동림동 생산녹지 800P 매매8억
◉담양 임야 25만P P당 3,000원
◉담양 관리지역 2000P 2차선 도로접 임야 P당 9만원
◉광산구 삼거동 관리지역 2000P P당 10만원
◉대덕면 7,000P 3억7천 고속도로주변
◉골프연습장부지 3,000P P당 120만원 30m 도로접
◉암자부지 2,700P P당 7만원
◉옥과소재지 2억 전원주택·과수원 1,500P 2억
◉서창동 주거지역 아파트·빌라부지 1,700P 평당120만원

하남공단 냉동창고점 식품회사 급매
공장부지 4,000P 건물1,400P 매매가 48억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P 건물 500P

APT1800세대 마트점 목욕탕
대120P 건270P 현재 주인직영중 매12억